

사회

전남 중학생 200명 광복절 뜻깊은 역사체험 여행

“독립투사들 나라사랑 느껴집니다”

도교육청 ‘선상 무지개학교’ 오늘 상하이 임정 방문
독도서 글짓기·그림 그리기... 우리땅 소중함 배워

“광복 66주년을 맞아 일제의 강압 통치에 굴복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삶의 현장을 방문하게 돼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독립지사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불굴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마련한 ‘선상 무지개학교’에 참가한 전남지역 중학생 200여명은 15일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앞두고 이같이 다짐했다.
선상무지개학교는 학생들이 해양

등의 거점인 상하이 임정 청사를 방문, 선조의 독립정신을 기린다.
이들은 임정 청사 앞에서 조별로 나눠 상해 임시정부의 역할과 독립의 의의, 독립지사들의 증국활동 등 해외 독립운동에 대한 발표문을 낭독하는 등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에는 새유달호 관광에서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열고 애국가 제창, 한국에서 가져간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 하는 등 독립의 의의를 되새긴다.
박우연(여수 진성여중 2년)양은 “선조의 독립혼이 남아 있는 현지에서 광복절 행사를 갖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선상무지개학교 학생들은 지난 4일에는 일제가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우리땅 독도를 방문,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독도는 대한민국 땅’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선상에서 독도 사랑을 주제로 한 ‘독도 퍼포먼스’ 행사를 연이어 독도 현지에서 수비대에게 위문편지를 전달했다. 울릉도로 회항하면서 독도사랑 글짓기,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밖에 학생들은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기상을 배우기 위해 중국 쓰다오(石島)지역을 방문했다. 목포대 강봉룡 교수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의 해상 영웅 장보고와 이순신 장군’에 대해 강의했다.



전남도교육청의 선상무지개 학교 학생들이 지난 9일 목포 해양대학교 부두에서 초대형 실습선 새누리호에 승선해 가족 등에게 출항인사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한편, 지난 9일 목포에서 출항한 해상무지개 학교는 15일까지 중국 현지에 머문 뒤 오는 17일 일본 나가사키에 입항해 원폭자료 기념관, 평화공원 등지에서 해외 문화체험 행사를 갖고 20일 귀국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적우수, 모범학생,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전남지역 중학생 200여 명이 참가했다.
도교육청은 참가 학생들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윈난(雲南)성

과 저장성(浙江省) 거주 학생 10명을 초빙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상무지개 학교 학생들이 상해 임시정부 청사 방문과 독도 방문을 통해 선조들의 독립혼을 되새기고 우리땅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을 경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네이트 회원 정보 유출 “SK컴즈 위자료 줘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정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지급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집행은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각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254건 중 333명을 검거해 이 중 36명을 구속했다.”

모델 주인이 10대 투숙객 성폭행 하더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인 10대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주인이 경찰서행.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 모텔 주인 J(63)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서구 A모텔 3층 객실에 투숙 중인 P(18)양의 객실에 예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폭행한 혐의.
○J씨는 언니와 함께 투숙 중인 P양이 혼자 남아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 못한 것을 하려 했는데, 경찰에서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겁 없는 10대들

차량 훔쳐 부녀자 납치 강도
북부경찰, 추격 끝 6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4일 훔친 차를 몰고 다니면서 강도 행각을 한 구모(19)군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군 등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광산구 월곡동 모 주유소 앞에서 행인 B(여·45)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 또래인 이들은 지난달 남구 봉선동에서 에스페로 승용차를 훔

친 등 최근 차량 3대, 오토바이 10대 등을 훔쳐 타고 다니면서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수법으로 미뤄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한편, 일당 중 4명은 담양에서 도난 신고된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11일 오후 경찰에게 발각돼 2시간여 동안 도망 추격전을 벌인 끝에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로 파악과 학원가 등 탐문을 통해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이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4명을 검거하고 다른 2명도 추가로 붙잡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한민국 광복을 희망합니다”
‘국학운동시민연합광주시연합회’ 주최로 시민과 학생들이 14일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 모여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희망합니다’란 주제로 태극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폭력 위기엔 급소를 차라”

강해진 학교 성교육
교사용 매뉴얼 배포

‘성폭력 위기에서는 남성의 급소를 발로 차라’
‘안돼요 싫어요 라고 말하기’로 대표되는 피해자 중심의 소극적 성교육 방식을 벗어나 적극적 행동을 강조하는 성교육 교재가 학교에서 사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식·지침 전달 위주인 기존 성교육 교재를 보완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용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해 16일부터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중학용 매뉴얼에는 성폭력 위기 대처법, 음란물(일명 아동)에

관한 지도 방안, 성충동 관리 요령 등이 담겼다.
매뉴얼은 “일찍 귀가하기”나 ‘안돼요 싫어요 라고 말하기’로 대표되는 여학생 대상의 기존 예방교육은 너무 수동적이며 성폭력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소용없다”며 “적극적 대처를 위해 훨씬 ‘거친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거친 방법의 예로는 1km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큰소리로 악쓰기, 남성 급소를 발로 차기, 호신용품 휴대하기 등을 꼽았다. 이어 “반드시 품으로 익혀야 한다”며 악쓰기는 강당이나 수련원에서, 급소차기는 체육복을 입고 발차기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연습하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단속경찰에 행패 노래방 주인 구속

광주북부경찰
단속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고 쫓아가 행패를 부린 노래방 주인이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14일 단속 경찰관에게 흥기로 위협하고 맥주병을 던진

H노래방 주인 심모(52)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11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자택의 H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고공음주 판매 등을 단속 나온 북부경찰 소속 경찰관 2명에게 흥기로 위협

한 뒤 맥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단속 직후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가 “내가 교도소에서 10년을 살았다”며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강진장학재단 불법조성 의혹
황주홍 군수 곧 기소 여부 결정

광주지검, 조사후 귀가
강진장학재단의 기금 불법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2일 황주홍 강진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 황 군수를 소환해 6시간여 동안 장학기금 조성 경위를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황 군수와 장학재단 관련 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불법성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황 군수가 2005년 설립된 강진군민 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공무원을 동원해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당시 황 군수에 대해 공의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the slogan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Former successful students say!) and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Start your civil service exam preparation at Hanbit Gosihakwon!). It lists various exam preparation courses for July and September, including '7월 종합반', '9월 종합반', '법원사기보', '소방직(전면)', '명품 '강력단과'', '7.9급 검찰직', '9월 아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and '부시번(공무원)'.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and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branches in Gwangju.